

## 과학·환경 독후감 쓰기



6 학년전반반 이름 :

읽은 도서명 : 두 얼굴의 하늘, 날씨라 재해

[제목] : 날씨의 경고

휴~ 바람, 구름, 비, 날씨라는 농은 잘 알겠으나 뉘 면서도 또 잘 모르겠다. '하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날씨에 적용 된다면 호우, 가뭄, 태풍도 생기지 않고 매년 풍년으로 농부도 행복하고 재해 없는 생활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과학이 숨어있는 자연현상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 같다. 한파가 몰아닥쳤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니 나쁜 미세먼지 때문에 밖을 나가기 어렵게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얼은 머리가 온기를 기다리면서도 매해 불어오는 태풍에 무섭기도 하다. '두 얼굴의 하늘', '날씨라 재해'라는 제목을 보니 엄마의 두 얼굴이 떠올랐다. 온화한 미소를 짓는 얼굴,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르는 얼굴. 어떻게 하면 활활 타오르는 얼굴 대신에 미소 짓는 얼굴을 볼 수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건 바로 내가 엄마에 대해 잘 알고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날씨라 재해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자세히 알아보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다.

추운 겨울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해는 한파이다. 한파는 겨울이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추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다. 다행히 겨울철 내내 이런 강추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불어오면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따듯한 날씨가 된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듯 하다. 삼한사분, 우리에게 알싸한 겨울 추위도 느끼게 해 주면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여쭙 뒤에 따듯한 날씨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겨울철에 이런 자연의 선물을 마음 편히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늘 겨울 100년 만에 찾아온 미국의 살인 한파와 서울의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된 걸 보면 겨울철 날씨가 삼한사온이 아닌 예측불가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한껏 오염으로 생기는 지구온난화이다. 더 이상 이런 날씨의 변덕을 막고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절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를 보면서 미세먼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숨쉬기 힘든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고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봄철에 항사가 힘든 날씨였는데 지금은 계절에 관계 없이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방해군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공장이나 자동차매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최악이 된다. 우리나라 남서쪽에 위치한 중국의 공장이나 석탄 화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같이 날아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특급 발암 물질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에 아주 해롭다. 이러다 마스크 대신 방독면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이잉이잉” 미세먼지 주의보가 또 발령되었나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으니 오늘은 아빠차로 등교하기 어렵겠네.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등교해야겠다’ 다행히 모두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최근에는 중국과도 협력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쪽이고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씻어내리는 실험까지도 있었다. 비록 실험결과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을 지속한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나는 여름을 제일 좋아한다. 여름방학이나 휴가 때 시원한 계곡과 바닷가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가 일정을 계획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날씨가 있다. 바로 태풍이다. 태풍은 적도 부근의 뜨거운 바다에서 생기는 엄청난 힘을 가진 수증기 덩어리이다.

“우와! 이 수증기 덩어리가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기도 하고 집을 붕괴 시키기도 까지 하다니.”

자연은 참 신비롭다. 그런데 태풍이 항상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다. 수증기 양이 적은 태풍은 비바람이 크게 세지 않아 가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 과학·환경 독후감 쓰기

6학년진리반 이름 :

읽은 도서명 : 두얼굴의 하늘, 날씨와 재해



[제목] : 날씨의 경고

어떻게 보면 태풍의 두 얼굴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을철에도 태풍이 불어온다. 여름 초·남반  
태풍이 왜 가을철에도 불어오는 것일까?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의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뜨거운 수증기와 가을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수증기가 만나서 여름보다  
더 심한 비바람이 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 할 숙제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살기 좋은 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가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치가 변한 것도 아니고 지구의 공전이  
멈춘 것도 아닌데 계절이 맞지 않는 날씨와 재해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서울은 봄꽃 축제가 한창인데 경북 지역에서는 폭설과 강풍이 일어나서 나무가 뽑히  
고 정전이 일어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지속적인 경고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예전에 날씨를 우리 조상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하였다.  
그리고 AI, AR, VR과 같은 첨단 기술에서 살아갈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중요  
할 것이다. 우리가 계속 지구의 위험한 메세지를 무시하고 녹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될까? 영화에서  
뿐만은 온갖 무서운 기형적인 일들이 현실에서 재해로 발생하고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자연과 무쟁하는 세상이 될 것 같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자연, 날씨는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솔직하다. 날씨의 순수함이 유지되도록 내가 먼저 작은  
노력들을 실천해야겠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까운 곳 걸어다니기. 마지막으로  
날씨와 재해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날씨의 고마움을 생각하게 하고 날씨의  
순수함을 더 이상 우리가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두얼굴의 하늘  
책이 정말 고맙다.